

2012.06.22 (금)

제311회 2차본회의

5 분 자유 발언

'단양소방서 설치 시급하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단양군 출신 김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단양군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접경 지역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소백산·월악산 국립공원, 남한강, 단양팔경 선사유적 등 천혜의 자연유산과 선조들의 열이 깃든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또한 그동안 군민의 숙업사업인 수중보건설 공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호반관광도시로 변모하여 향후 1천만 관광객과 방문객이 찾는 관광·휴양도시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어 3만여 단양군민 모두는 큰 희망과 기대감에 벅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럼 1천만 관광객과 방문객의 안전과 수려한 자연경관, 선사유적의 보존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방활동을 전담할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물론, 인근 제천소방서에서 단양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단양군은 780.67km²의 넓은 면적과 83.7%가 험준한 산악지대로 화재발생 시 접근성이 쉽지 않고, 23.7km의 남한강 지류에는 매년 낚시객과 래프팅을 즐기는 피서객이 줄을 잇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에는 4km에 이르는 터널이 있고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는 기도에 정진하는 수 천명의 신도 등 연간 200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백산, 도락산, 제비봉, 황정산에는 4계절 등산객과 휴가철 피서객이 찾는 곳임은 물론, 하늘에는 경비행기까지 날고 있어 단양은 관광과 휴양 그리고 레저의 도시입니다.

이처럼 레저와 휴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하늘·강·산·철도·도로 등 모든 곳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및 수난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중점 관리해야 할 고층아파트, 한일·성신 등 대형 시멘트사, 광산의 위험물저장·처리 시설 등 소방대상물 또한 739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양에는 2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특수구조대, 3개의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지휘·감독하고 현장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양군에 소방서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1시·군 1소방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강원도와 경상남도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책임 소방행정을 위해 우리도도 1시·군 1소방서 설치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